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교회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새해가 되었습니다. 희망 찬 새해라고는 하지만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새해가 어찌면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묵시록적 종말의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앞에 다가 온 새해는 반드시 희망 찬 새해라고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가 살아날 수 있는 돌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지구상의 어떤 우방도 혈연도 아니고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과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이 그리스

도의 장중에 있으며 분자 하나,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로 귀일되고 그에게로 통일됩니다.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것이며 그와 함께 삽니다. 역사는 바로 그의 이야기(History)이고 그 밖의 모든 이야기는 그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앙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남아지는 법이 없고 우리의 삶은 늙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병들거나 시들지 않고 날로 새로와질 뿐입니다. 질적으로 새 것이 되었기에 다시 낡아질 염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조주의 손이 닿는 것마다 새 것입니다. 소녀가 나이가 들면 처녀가 되고 부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처녀가 되고 소녀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영원한 소녀이고 영원한 처녀입니다. 천국에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이 없으므로 영원히 새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자기의 생애에 대해 우리는 흥미와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채워진 사람은 행복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기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종교의 내용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지나친 신비주의적 경향에 빠져 교회의 본질적 책무를 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도적 교회 중심의 생활에 치중하다보면 지나친 교권주의에 매이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읽을 수 있는 예언자적 종교와 제사제도의 대립은 이같은 각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적 종교는 내용과 자기 경험을 강조함으로

◆ 신년메시지 ◆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역사 속에 책임있는 교회 되자



이종윤 (목사·당회장)

교회의 제도적 구애를 받지 않으려 했고, 제사적 종교는 교회의 제도와 권위의 전통을 고수한 나머지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둔감해져 독선주의와 권위주의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그 양면성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극단적 대립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선교적 사명과 목회적 사명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대외적인 선교 사회 봉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교회 내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말합니다. 그들을 유지 관리키 위해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순수 복음운동과 제도화된 교권주의의 싸움은 기독교 이천년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복음과 율법의 대

립이요, 내용과 형식(제도)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면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우리 교회는 그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 있다해도 형식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형식을 버리면 새로운 형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은 공존해야 합니다. 형식이나 제도가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그 한편이 다른 한 편을 좌우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때 문제는 심각해 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갱신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너무도 동적이어서 어떤 제도나 형식 속에 영원히 가두어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제도 때문에 어느 시대에도 개혁의 소리는 요청되어 왔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제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모든 제도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섬긴다는 교회의 본래적 사명은 상실되고 인간이 만든 제도라는 울타리 속에서 복음이 감금당해야 한다면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모를 사람이 없듯이 부패한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독소를 우리 신앙인들은 깨달아 책임 있는 교회를 세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994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듯 사회와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옛 습관과 제도와 사고와 가치관을 과감히 깨어버리고 새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새 옷을 입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당회장과의 신년 대담 ●

“새 일을 할 때에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교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헌신하는 한 해 되길

▶ 그간 우리 교회의 목회지침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개인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으리만큼 이상적인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1992년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어와 1993년도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어는 교회의 한 해 동안의 표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생애에 항상 기억해야 할 귀중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1994년도의 목회지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94년도에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도록
목회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 먼저, 「순례자」의 지면을 통해 우리 서울교회 가족 위에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1992년)”, “하나님 앞에서(1993년)”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1994년도에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내적으로 충실해져 거듭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도록 목회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나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엇보다도 우리교회의 당면 과제는 교회당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두고 교회를 위임받으신 분으로서 성도들에게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 교회당을 짓기 전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없이 속히 예배당을 지어야겠다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터전도 성전도 가시화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9월에 건축헌금을 했는데 눈물과 피를 쏟아 헌신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깊이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있어 저는 온

분명한 것은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과
결코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기 전,
먼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들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과 결코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설립 초부터 우리교회는 교육·선교·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고 정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있을 제 5차 김치세미나를 위해 러시아 선교여행도 다녀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외적인 일들을 통해 책임있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과 교회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일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실현해 가도록 보다 근본적 생활원리로 삼아야 할 지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구시합의 해설자가 한 촌평이 기억납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하면 내적으로 뜨거워지고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이는 내실 운운 하지만 세워놓은 자전거는 넘어지는 법입니다.

.....
우리는 흔히
새 힘이 생겨야 새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

새 힘은 새 일을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
우리는 흔히 새 힘이 생겨야 새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 새 힘은 새 일을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긴 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끝내 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라 열심히 일할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 대담 / 이 영 기(순례자 편집인)

새해 인사드립니다.

- 교역자 · 장로 일동 -



다채로왔던 성탄절 행사

(성탄절야 예배, 성탄절 새벽예배, 성탄감사예배, 성탄절 음악예배, 중·고등부 아이노스의 밤)



아기 예수께 바친 성극

이 장 인(집사, 11 교구, 사랑부 교사)

“예수님 사랑해요!” 선만이의 대사는 이 한마디였다. 자폐증세를 가진 선만이는 스무살이 넘는 미남 청년이다. 나는 예배가 끝나면 선만이를 그의 집인 화곡동까지 데려다 주는데 얼마 전에 선만이와 내게 작은 사진이 생겼다.

사랑부가 「성탄 축하의 밤」 행사에 성극을 하게 되어 한 달이 넘도록 주일 사랑부 집회 후에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 3주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집안에 모임이 있어서 그날만은 선만이를 예배 후 바로 집에 데려다 줄 심산이었다. 웬지 그가 싫어하는 선만이를 차에 태워 그의 집 부근에 도착했는데 선만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 성극연습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크게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만이에게는 분명한 자기 의사가 있었을텐데 내가 불식간에 선만이를 무시한 꼴이

있었다.

그 때부터 선만이와 나는 30분간에 걸쳐 실랑이를 벌였다. 좁은 골목이라 차를 비켜 달라고 뒤에서는 연신 경음기가 울려대고 그러면 다시 한바퀴를 돌아서 집 앞에 오기를 다섯 차례. 아무리 달래도 선만이는 완강했다. 다시 교회로 데려가자니 성극 연습도 끝났을테고, 사실은 교회엔 갔다가 다시 화곡동까지 데려다 주는 일도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다. 결국 선만이에게 팔을 물리고 머리를 뜯긴 후에야 그를 겨우 집에 들여 놓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선만이의 아버지가 함께 왔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선만이의 아버지도 아마 미안한 마음이 드셨던 모양이다. 그저 송구스런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내 귀에 선만이 담임 선생님께서 속삭인다. “선만이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대요.”

“아, 하나님!”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선만이를 통해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는 것일까?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사랑부 성극은 막상 공연하는 「성탄 축하의 밤」에는 유감스럽게도 음향사고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연극을 보셨다. 목사 지망생인 용훈이는 연습할 때마다 열한살 때 자신을 버린 엄마 아빠 생각에 얼마나 울던지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목을 메게 했다. 이들 앞에선 우리의 건강조차도 미안할 뿐이다. 모두가 슬프고 연민이다. 작년에는 봉사를 처음 하면서 내가 너무 힘에 겨운 부서를 지원했구나 하는 후회를 가끔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후회는 간 곳이 없다.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집에 와서도 빨리 보고 싶어진다. 이제는 거저 ‘을 한 해도 주님을 힘입어 열심히 해 봐야지’ 하는 마음 뿐이다.

▶순례자 컬럼

어둠 속에 이 빛을

임진태

(목사, 제1·2교구, 새가족부, 찬양·예배위원회 지도)

가끔 심방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야 교회 문을 나서게 될 때가 있다. 교회 주변 골목 여기 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술 취한 사람들을 겨우 피하여 큰 도로로 나르면 거기 역시 많은 차량으로 붐빈다. 마치 아침 출근 시간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도대체 그 시간에 도로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차량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그 늦은 시간에 귀가를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최근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면 밤 늦게까지 힘써 일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 거의 없다고 한다. 저마다 힘든 일을 기피하고, 적당히 벌여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이 짙어져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런 풍조가 만연해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필경 그 시각 거리의 차량들은 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고 치유받아야 할 가정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주위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모두들 좀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열망하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 불안과 위기의식이 팽배해 가고 있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없이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향도해 가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한다. 이 민족과 가정, 개인의 행복과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외치며 또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장로교회는 단순한 지역교회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불안에 떠는 이 민족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교회 갱신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야 그 불길이 교회로, 민족 전체로 파급되어 갈 수 있다. 성령운동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며 우리 민족에 새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어두움을 성령의 불길로써 몰아 내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개인, 성령의 축복을 받는 민족! 이것이야말로 1994년을 열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1994 청지기수련회

오늘 5시에 헌신예배를 시작으로

올해도 '선한 청지기'와 '교회'라는 주제로 청지기수련회를 갖는다. 오늘 찬양예배시에 헌신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여 제직, 교구일꾼, 권사, 교사, 찬양대원, 전도회 임원, 장로 순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될 수련회의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일 I, II예배후 진행될 권사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벽에 진행될 것이므로 수련회 참석 후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대 상	일 시	강의 및 강사	웁삽 및 담당자
제직	3일(월) 오전 5시 - 6시30분	제직과 봉사 (이종윤 목사)	부서별 웁삽 (지도 교역자)
교구일꾼	4일(화) 오전 5시 - 6시30분	지역장, 다락방장, 권찰의 역할과 임무 (권상석 목사)	다락방 운영 방안 (교구담당교역자)
권사	5일(수) 수요일예배후 수요일II예배후	권사와 교회 (장용휘 목사)	영성훈련 (최병호 목사 김주아 전도사)
교사	6일(목) 오전 5시 - 6시30분	교사와 교육 (원필현 목사)	효과적인 지도 및 학습 방안 (지도교역자)
찬양대원	7일(금) 오전 5시 - 6시30분	찬양과 예배 (임진태 목사)	찬양의 실제 (박정선 집사)
전도회 임원	8일(토) 오전 5시 - 6시30분	전도회 임원의 역할과 임무 (김재호 목사)	지회별 전도회 운영방안 (지도 교역자)
장로	10일(월)		

주간 순례자

- 새해에는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

「순례자」는 서울교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간의 교제와 교육, 그리고 전도와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매주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순례자」는 한정된 부수만을 발행하므로 전도나 기타의 목적으로 개인이 100부 이상을 가져가실 경우, 「순례자」 편집부를 지도하시는 장용휘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5시 35분 ~ 6시
 기독교방송(HLKY 1188KHz) 「나의 길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신축을 위한 성전부지를 허락하옵소서.
2. 새해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청지기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4. 입시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09:00
	II부 오전 11:00
	III부 오후 02:00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05:00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00
	II부 오후 07:00
금 요 기 도 회	오후 0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05:30

■ 교회위치

